

예 배 순 서

“이 시간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2) 찬 송 ----- 59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3) 기 도 ----- 대 표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경봉독 ----- 사무엘상 7:12~14(구약 418쪽) ----- 다 같 이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5) 설 교 ----- 인 도 자

■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7:12~14

추석하면 떠오르는 말 중 하나가 “늘 한가위만 같아라”입니다. 추석이라는 시기가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하는 가장 풍성한 시기이기에, 늘 이때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추석하면 기쁨과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요 중에 있든,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여곡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어려운 상황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하여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12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사무엘이 굳이 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추석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2.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입니다. 에벤에셀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이라고 고백될만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꽃길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또 다른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때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삶 속에 에벤에셀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후의 시간들도 은혜 중에 인도하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벤에셀을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도 지나가게 하시며, 새로운 에벤에셀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풍요 중에 있든,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 가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찬 송 ----- 28장 -----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7)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 추석(秋夕)명절 가정예배순서



예 배 준 비

1.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고, 지방도 쓰지 않으며,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가족들이 둘러앉고 예배 인도자는 앉거나 서서 인도합니다.
3. 본 예배 안내지의 순서에 따라 가족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4.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평교회

담임목사 : 김 삼 열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5길 22-20
Tel. 02)359-1189, 382-1190 Fax. 02)353-0468
www.eunpyungch.org